

# “70년 뿌리고창인 306명 감사합니다”



지난 28일 고창 동리국약당에서 열린 '2024 뿌리고창인 증서 수여식'에서 증서를 전달받은 뿌리고창인들이 심덕섭 고창군수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창군 제공>

## 고창군 '증서 수여식' 개최...쓰레기봉투 무상 지급 등 13개 우대 정책

고창군이 70년 이상 고향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고향사랑을 실천해 온 306명의 군민에게 감사의 증서를 전달했다.

고창군은 지난 28일 고창 동리국약당에서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조만규 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윤준병 의원을 비롯한 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뿌리고창인 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고창군의 '뿌리고창인 정책적 지원우대'는 민선 8기 심 군수의 공약이다.

심 군수는 취임 후 최우선 강조사항으로 "평생을 고향에 터 잡고 살아오시며 청정 자연환경과 세

계유산을 소중하게 지켜오신 군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최근 귀농귀촌 등 외지 인구 유입책과 맞물려 고창에서 나고 자란 군민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앞서 지난 6월 뿌리고창인 신청을 받아 총 374건을 접수한 군은 뿌리고창인운영위원회를 열고 연령과 주소지 전·출입 기록 등을 확인해 306명의 군민을 뿌리고창인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뿌리고창인에게는 쓰레기봉투 무상 지급, 람사르 운곡습지와 선운산 유스호스텔 사

용료 50% 감면 등 13개의 우대 정책이 지원된다.

뿌리고창인 증서를 수상한 성송면의 홍성천씨는 "70여년을 살며 고창군민으로서 자긍심을 잃지 않고 살아왔다"라며 "앞으로도 내 고향, 고창을 사랑하고 고창군 발전에 이바지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오랜 시간 동안 고향을 지켜오며 지역을 위해 헌신한 뿌리고창인분들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모두가 살기 좋은 고향을 만들기 부단히 노력하고 정진 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삼성전자 고창 물류센터 가시화...건축설계 착수

## 삼성전자, 신활력산단에 2027년까지 건립...무영건축 설계 맡아

고창군 신활력산단내에 건립되는 삼성전자(주) 물류센터인 스마트허브단지의 건축설계가 본격화됐다.

고창군은 지난 24일 삼성전자 기업관계자가 지역을 찾아 심덕섭 군수와 만난 뒤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방문은 삼성전자의 고창군 물류센터 설계를 맡은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무영건축은 지난 10여 년간 부천로지스틱스파크, 다이소부산허브센터, 광주오포물류단지, 쿠팡

대구물류센터, 인천석남물류센터 등 국내 대규모 물류센터를 설계한 이 분야 선두업체다.

국내 여러 곳에서 물류센터 행정처리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꼼꼼히 살핀 뒤 기업체와 행정·주민들 간의 협력을 이끌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친환경 첨단물류센터 모델을 개발해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성공적인 건축설계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알려졌다.

무영건축은 대형 물류센터 설계 노하우와 최근 물류시장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인력 운영을 바탕으로 자동화 및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설계를 맡게 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축구장 2개 면적 규모의 고창신활력 산업단지 18만1625㎡를 매입해 자동화 기술이 접목된 첨단 물류센터를 내년부터 2027년까지 건립한다.

합병 공사비를 반영한 분양대금은 총 173억원이며 오는 11월 중에 소유권 이전 예정돼 있다.

군은 공사 중 건설·기계장비 등 관내 기업 및 인력의 우선 활용과 채용도 논의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스마트물류센터가 본격 운영되면 500여명의 직·간접적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유·무형적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정읍시 “영농부산물 소각 신청하세요”

## 전정 가지·고춧대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12월 10일까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농경지에서의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영농 작업 후 발생하는 전정 가지, 고춧대, 콩대 등을 파쇄 처리해 불법 소각으로 발생하는 산불을 예방하고 농촌 지역의 미세먼지 발

생을 줄이는 친환경 사업이다.

농·밭두렁에서의 불법 소각은 해충보다 10배 더 많은 악취를 해치는 결과를 낳아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장소에 부산물을 모아 두고 가까운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12월 10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지역 거주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이며, 마을 이장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관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사업이 영농부산물 처리의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불법 소각 방지를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5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 전복취재본부장 parkks@

# ‘정읍 지황’ 약용작물 우수성 입증

## 약용작물연구회, 농촌진흥청 ‘우수 생산단지’ 선정

정읍시 지황 생산단지가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 단지에 선정되며 정읍 지황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알렸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주관 '2024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평가에서 약용작물연구회가 우수상(농촌진흥청정상)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는 농진청이 원예특작 국내육성품종 보급사업 추진 우수단지 발굴 및 홍보를 통해 우리 품종의 안정적 현장 확산에 기여하고, 국내 육성 품종 재배 농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선정한다.

약용작물연구회는 자체 판촉 및 전시회 개최 실적, 지역 축제 및 정례회의 참여, 다수의 수상 경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약용작물연구회는 현

재 52명의 회원이 활동하며, 약 20ha 규모로 지황 품종 '토강'과 '한방애'를 재배하고 있다.

이용관 회장은 "회원들의 노력 덕분에 정읍 지황 산업이 눈에 띄게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품질 지황 생산을 이어가며 우리 지역의 약용작물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용관 정읍시장은 "이번 수상은 정읍 지황 농가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정읍 지황의 우수성을 알릴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재배 기술 교육을 통해 정읍 지황의 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11월 21일 농촌진흥청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 기자 전복취재본부장 parkks@

# 남원 구도심 산책길 밝히는 ‘청사초롱’

## 요천로~소리길 등 12km 야간경관...침체된 도시에 활력



남원시가 설치한 청사초롱이 아름다운 도심의 밤 풍경을 제공해 전통 문화·예술 도시 남원의 정취를 선사하고 있다. 광한루원 담장 밖 청사초롱 풍경. <남원시 제공>

남원시가 축제 홍보를 위해 광한루원 주변과 주요 시가지 등에 설치한 '청사초롱'이 구도심을 밝히며 전통 문화·예술 도시 남원의 색다른 야간경관을 구축해 침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제94회 춘향제의 사전홍보와 관광객 활성화에 위해 광한루원 주변(요천로-소리길, 남문로-춘향테마파크 등)을 중심으로 12km에 걸쳐 다양한 컬러의 청사초롱을 설치·점등해 왔다.

어두웠던 구도심과 관광지의 밤을 밝히며 시민의 야간 여가활동을 촉진하고 관광객에게는 남원의 아름다운 도심의 밤 풍경을 제공해 밤이 되면 더욱 더 살아나는 전통 문화·예술 도시 남원의 정취를 선사하고 있다.

특히 승월교 중심 요천수변의 터널형 청사초롱의 경우 요천이 내려다 보이는 전통과 도시를 잇는 청사초롱이여져 최고의 포토존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광한루원 주변과 경외상가 주변의 청사초롱은 매주 토요일마다 펼쳐지는 푸드스트리트 '월광포차'를 방문하는 먹거리·외지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야간경관으로 크게 한몫 하고 있다.

죽향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구도심으로 전락했던 도심이 청사초롱 설치 이후 환해져 밤에 산책하기 좋아 광한루 주변을 비롯해 요천 등지에 자주 나오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효과는 시의 청사초롱의 효율적 운영으로 더 배가되고 있다.

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형형색색의 청사초롱을 더욱 다양한 디자인과 색으로 변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청사초롱으로 남원의 밤이 더욱 특별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빛이 머무는 남원의 이색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